

▶ 전주디지털영화관 1월 셋째 주 작 공개

# 삶의 조건 직시



서바이벌 패밀리 · B급 며느리  
피의 연대기 · 다키스트 아워 등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전주영화제작소·4층)은 1월 셋째 주 작으로 생존에 관한 실화와 소동극, 그리고 삶의 조건을 직시하는 다큐영화를 선정해 상영한다.

오는 18일 상영 예정인 영화는 '서바이벌 패밀리', 'B급 며느리', '피의 연대기', '다키스트 아워' 등 4편.

지난 18회 전주국제영화제 폐막작으로 선정되어 화제를 모았던 '서바이벌 패밀리'는 소동이 단절된 전형적인 도시 가족들에게 일본 전역 정전이라는 재난을 겪게 되면서 벌어지는 좌충우돌 생존기를 그린다. 작품은 할리우드 재난영화에서 보여주는 거대한 광경이나 심각한 상황대신 현실적인 생존전략을 짜내려는 가족들의 현실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한편 해학적인 상황연출로 웃음까지 선사한다.

영화를 연출한 야구치 시노부 감독은 워터 보이스, 스윙 걸즈, 우드잡 등을 통해 유쾌하면서도 삶의 이면을 돌아볼 수 있는 이야기를 담은 작품들로 호평을 받았다.

이와 함께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 한국경쟁부문작인 'B급 며느리'는 전통적인 며느리상을 거부하는 아내 진영과 어머니간의 갈등사이에서 등 터진 새우풀로 살아가는 남편 호반이 자신의 생활상을 썰고 고발하는 다큐멘터리로 풀어낸 작품이다. 고부간의 갈등이라는 일반 가정의 보편적인 상황을 무거운 시선이나 고답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유쾌하고 솔직하게 담아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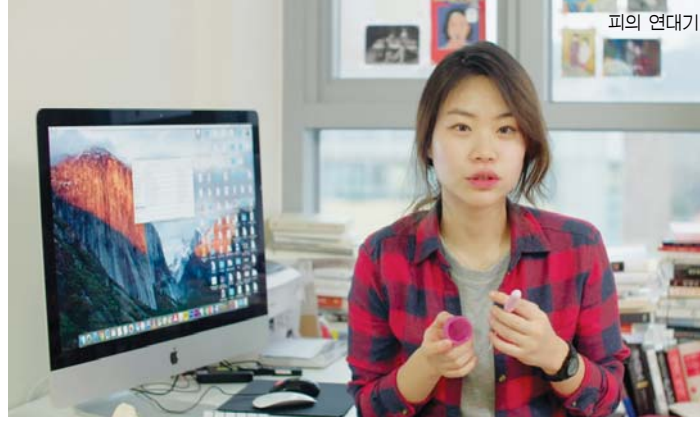
1월 개봉영화 관객설문조사 선정작 '피의 연대기'는 모든 여성들이 한 달에 한번, 일 년에 12번, 생애 최소 400번 이상 겪게 되는 생리에 대해 면밀하게 탐구하는 다큐멘터리다. 여성이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것임에도 그간 역사·사회적으로 터부시 되어온 현실들에 대한 여성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으면서 대안 생리용품, 세대별 생리에 대한 인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생리에 대한 담론들을 보여주는 작품



서바이벌 패밀리



B급 며느리



피의 연대기



다키스트 아워

이다. 영화는 생리에 대한 왜곡된 정보와 불이해를 타파하면서 생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올해 초에 만날 수 있는 유익하고 재미있는 다큐멘터리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또 한 편의 영화 '다키스트 아워'는 2차세계대전을 배경으로 실시되었던 다이아몬드 작전이 실행되기까지 영국 총리 윈스턴 처칠가 겪는 고뇌와 정치적 과정을 담은 영화다. 어톤먼트, 오만과 편견으로 명성을 높인 조 라이트 감독의 신작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연기 베테랑 케리 울드만이 윈스턴 처칠 역을 맡았다. 케리 울드만 스스로 "지금까지 한 영화 중에 가장 힘들었던 작품이자 동시에 연기하는 게 가장 즐거웠던 영화가 바로 다키스트 아워다"라고 말할 정도. 그의 일생일대의 연기를 볼 수 있는 작품으로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홈페이지(<http://thequiff.or.kr>). /정해은 기자

## 소리문화전당, 공간기획전 참여 청년작가 모집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이 오는 19일까지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프로그램 '2018 청년작가 공간기획전'에 참여할 작가를 공개 모집한다. 이번 공모는 전당에서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작가 발굴 및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공모부문은 평면·입체·영상·설치 등 예술 전 부문으로, 지역에서 활동 중인 1978~1993년 청년작가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응모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한 참가신청서와 함께 작품 20점 이상의 포트폴리오 및 작품구성 계획서를 첨부해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전 부문에 걸쳐 총 4명(개인 또는 팀)을 선정하며, 1차 서류심사와 2차 프리젠테이션 면접을 통해 최종 선정된 작가에게는 창작지원금 200만원과 홍보물 제작 지원 등 전시 개최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제공한다. 전시는 4월·5월·10월·11월 총 4회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정해은 기자

## 전북문학상 수상자 3인 선정 | '시' 신해식 · '수필' 김두성 · '평론' 최명표씨

제29회 전북문학상 수상자로 신해식(시)·김두성(수필)·최명표(평론) 등 3인이 선정됐다.

전북문인협회(회장 안도는)는 매년 초 지난 한 해 동안 가장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해 온 작가들을 대상으로 문학상을 시상한다. 서재균·정근수·최정선 등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신해식 시인은 1989년도에 등단, 올해 여섯 번째 시집 '기슴을 지배하는 한줄기 첫사랑의 추억으로'를 출간했다. 풍물시동인 회장과 전북문협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신해식



김두성



최명표

현재 전북대 평생교육원과 김환대 문학관에서 시를 강의 하고 있다. 김두성 수필가는 1994년 포스트 모던으로 등

단, 올해 두 번째 수필집 '행복은 이미 당신입니다'를 펴냈다. 남원문인협회 지부장을 연임하며 지방문단 활성화에 이바지 하는 등 그 공적을 높이 평가받았다.

최명표 평론가는 1990년에 등단해 그동안 전북근대문학자료(6권)를 정리했으며, 지난해엔 전북문단 70년사 발행의 주도적 역할을 했다. 최근 3년간 23편의 평론을 발표하기도 했다. 시상식은 오는 20일 바울문화센터에서 열리며, 수상자들에게 각각 창작지원금 200만원이 주어진다. /정해은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 교동미술관 신소장품전 22일까지

교동미술관(관장 김완순)은 22일까지 미술관 2관(구 교동아트스튜디오)에서 신소장품전을 연다.

이번 전시는 2015~2017년 3년 동안 구입했던 신소장품들 중에서 20호 이상의 작품들을



위주로 선보인다. 미술관은 이주원의 '검는다' 송수미의 '나눌 수 있는 호흡' 강종열의 'Camellia' 신홍우의 '도시의 축제' 강현덕의 '너의 이름은-희망' 김부견의 '우리집' 박계성의 '수평조물' 등 14점을 소개한다.

김완순 관장은 "미술관은 지역화단에서 작업하는 작가의 작품 소장뿐만 아니라 중앙화단에서 작업하는 작가의 작품도 꾸준히 지역에 소개·구입하는 등 소장품 구축에 힘쓰고 있다"며 "다양한 전시기획 활동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작품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http://www.jjmaeil.com)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자동차 이젠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대표 이영근**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